

“아프리카 학교 후원하려면 또 아껴야죠”

부산서 홀로 사는 김초자 할머니
지난 3월이어 두 번째 기금 화제
서울 반야사도 1000만원 ‘보시’



부산에 거주하는 김초자 할머니가 지난 24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 지난 3월에 이어 아프리카 학교 지원금 1300만원을 전달했다.

“살다보니 총무원장 스님도 보고, 내 그저 좋네. 집안이 역수로 가난해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 불자들 힘으로 짓는 아프리카 학교는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지난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만난 김초자 할머니의 얼굴엔 연신 웃음이 묻어났다. 아름다운동행의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에 지원할 1300만원을 직접 전하기 위해 부산에서 올라오느라 새벽부터 부지런을 떨었지만, 피곤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먼 걸음을 한 김 할머니에게 “진심과 정성이 어린 돈을 모아줘 참 고맙다”며 “10배, 아니 그 이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김 할머니 손목에 단주를 채워주며 “건강하시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김 할머니는 총무원장 스님의 인사에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김 할머니는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보살님이라 부르며 수고로움을 알아주시니 그저 기쁘다”며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때마다 돈을 모아 학교에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할머니의 탄자니아 학교 지원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 3월에도 아름다운동행에

연락을 해와 15년 동안 모은 1000만원을 학교 지원금으로 보냈다. 어린 동생들 공부시키느라 칠십 평생을 배우지 못한 설움 속에 살았던 김 할머니는 기부 당시에도 “내 밥값은 아까워도 어려운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며 “스님과 신도들이 모은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기쁘다”고 했다. 독실한 불자이기도 한 김 할머니는 이날 “조금이라도 학교에 보태주려면 지금부터 돈을 아껴야겠다”며 밝게 웃었다.

한편 같은 날 서울 반야사도 아프리카 학교 지원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전달했다. 반야사 주지 원옥스님은 “종단이 하는 좋은 일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9월5일 개교 탄자니아 학교명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확정

오는 9월5일 개교하는 아름다운동행의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학교’ 한글명이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으로 최종 결정됐다. 만 16세까지 의무 교육을 마친 뒤 전문적인 기술 훈련을 받기 위한 대학교정 운영 학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10일 탄자니아 정부기관으로부터 학교 영문명 ‘Borigaram Agriculture Technical College’에 대한 공식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24일 “기술과 직업 실무를 중점으로 하는 전문대학(College)이라는 점을 살려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으로 한글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원예 기술을 교육하는 전문학사 교육기관이다. 내년 부터 관련 법 개정에 따라 3년제 대학으로 전환된다. 올해 입학하는 중등교육과정을 수료한 60명의 학생은 수료 후 3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2014년부터 깨달음의 공간을 뜻하는 ‘보리가람’이 들어간 학교 이름을 고심해왔다. 학교 내 가르침이 탄자니아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그동안 보리가람 농업고등학교, 보리가람농업기술학교 등으로 사용해왔지만 지난 10일 탄자니아 정부 기관으로부터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고, 이로써 한글명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경민 기자

‘행복한 사회 만들기’ 종단지원 요청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



계의 지지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작은 결혼식이나 작은 육아문화 만들기 등은 법에서도 좋은 법문 소재가 될 수 있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인 자비정신과 생명존중사상이 보다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불교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복지재단의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협조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강은희(사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여성과 청소년, 가족지원 사업에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강 장관은 ‘행복한 가족·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결혼식 및 작은 육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젊은층 대상 부모교육 활성화 등에 관심을 요청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전체 관심이 필수적인데 특히 불교

“템플스테이, 오해 소지 있어 바로잡는다”

중앙일보, 정정보도

‘템플스테이 600억이 저출산대책?’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불교계 안팎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중앙일보가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입장을 담은 정정 기사를 게재했다. 이는 해당기사로 논란이 불거진 이튿날인 지난 24일 총무원 기획국장 도성스님, 홍보국장 효신스님,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원경스님 등이 중앙일보를 향한 방문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중앙일보는 8월25일자 2면과 인터넷 지면을 통해 “8월22일자 1면 ‘템플스테이 600억이 저출산대책?’ 기사의 제목과 일부 내용으로 인해 템플스테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에 바로잡는다”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중앙일보는 불교문화사업단이 23일 발표한 반론문을 인용하며 “템플스테이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템플스테이 사업이 원래 목적과 달리 저출산 대책 사업에 활용된 바가 없다고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템플스테이는 2002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통문화의

가치를 문화관광자원화하여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한 문화체험 기회 확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내·외국인은 지금까지 약 370만 명에 달한다”면서 “2009년에는 OECD 보고서 ‘The Impact of Culture on Tourism’에서 “템플스테이는 관·민이 협력하여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세계 5대 문화관광자원”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23개 운영사찰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문화적 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국가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일보는 템플스테이 예산 세부항목이 종교시설·캠핑장·전통한옥 등 ‘가족 여가지원 사업’임에도 해당기사에 ‘템플스테이 600억이 저출산 대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올려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폄하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불교계 공분을 샀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9월말까지 총무원장선출법안 마련”

직선제특위, 소위원회 구성
10월 공청회 … 11월 발의

총무원장직선제 법안을 마련 중인 직선제특위가 승남 10년 이상, 법계 중·정·정 이상의 스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직선제특별위원회(위원장 태관스님)는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최대 쟁점 분야였던 선거권 부여 범위를 이같이 결의했다. 이에 따라 법계 중·정 이상의 비구 4400여 명, 법계 정·정 이상의 비구 4200여 명 등 총 8600여 명이 선거권 대상에 포함된다.

직선제특위는 이를 근간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종헌 개정안과 총무원장선출법 제정안의 기초안을 성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도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태관스님과 목종스님, 정산스님, 선광스님, 무구스님 등 5명으로 구성기로 했다.

소위는 향후 일정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종헌 개정안과 총무원장선출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0월께 공청회를 열어 중도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거쳐 직선제특위 전체회

의를 통해 종헌 개정안과 총무원장선출법 제정안을 최종적으로 성안해 11월 열리는 제207회 중앙종회 정기회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도성스님 중앙종회의원 당선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직능대표 복지 분야에 전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도성스님(사진)이 당선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스님)는 지난 25일 제317차 회의에서 제16대 중앙종회의원보궐선거 직능대표 복지 분야 당선자로 도성스님을 확정했다. 2명의 후보자가 등록한 사회 분야 1석에 대해서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가 선출하지 않음에 따라, 16대 중앙종회는 정원



81명 가운데 80명이 됐다. 선출하지 않은 사회 분야 1석은 내년 2월 진행될 보궐선거에서 다시 선출할 예정이다.

도성스님은 1988년 혜성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총무원 재정국장, 조사국장, 사서국장,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흥천 지장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박봉영 기자

‘2016 신작 찬불가 공모’

불교음악원, 9월9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정안스님)가 불교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창조적인 조화를 바탕으로 한 찬불가 보급을 위해 ‘2016 신작 찬불가 공모’를 진행한다.

종단 총령기구인 불교음악원이 주관하는 올해 공모전은 악보, 음원에 대한 서류만을 평가했던 기존 심사에서 벗어나 1차 서류, 2차 발표 심사(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를 거치는 등 전문적인 찬불가를 선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불교음악에 관심 있는 불자 및 일반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찬불가합창곡, 찬불가요, 찬불국악가요, 찬불동요 등 불교적 사상 또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창작곡으로, 장르의 제한이 없다. 다만 노랫말이

추상적, 관념적이지 않고, 한문사용은 자제된 가운데 불교사상과 가르침을 표현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 악보 5부(제본 상태 및 파일로 제출), 음원(국당 1개의 음원 파일 제출), 사진 1매 등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원)으로 오는 9월9일 오후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대상(총무원장상) 1명에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1명에 300만원 △우수상 3명에 각 100만원 △노래말상 1명에 상금 100만원 △특별상 1명에 상금 100만원 △장려상 3명 각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제3회 불교음악상 시상식에서 초연되며, 앞으로 1년간 불교음악원 주최의 각종 행사에서 연주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최종 심사 결과는 10월 초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2017 붓다아트 페스티벌

한국전통 · 불교미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우리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붓다아트페스티벌의 행보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붓다아트페스티벌(Buddha Art Festival/BAF)은

연 7만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주처 서울국제불교박물관 산하의 아트페스티벌입니다.

국내 최대 불교 · 한국전통미술 오픈마켓으로서 자리잡은 붓다아트페스티벌은

한국전통 · 불교미술 시장 활성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매년 봄, 서울국제불교박물관과 함께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트페어 형식을 통한
불교 · 전통미술
국내외 시장 활성화

한국전통 · 불교미술의
건강한 오픈마켓 형성



불교 · 전통미술
장르확대 및 비전제시

한국전통 · 불교미술의
핵심가지와
현대인과의 공감대 형성



불교 · 전통미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분야 확대

신규 작가층 및
컬렉터 생성

부스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 2016년 10월 ~ 12월

전시일정 | 2017년 3월

전시장소 | SETEC (서울전시무역컨벤션센터 / 학여울역 1번 출구)

모집분야 | 불화, 불상, 단청 등 불교미술과 전통미술 전 분야 / 불교와 전통의 가치를 담은 현대미술 전 분야

